

배 포 일	10월 23일 / (총 1 매)	담당부서	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
사무총장	김명희	전 화	02-737-8950
연구부장	백수진		02-737-8450

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, 아태지역회의(AP-NEC) 개최

-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위원회 및 정부 대표단과 생명윤리 현안 논의 -

□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(위원장 박상은, 이하 “위원회”)는 10월 24~25일 조선포털에서 WHO와 협력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아태지역회의(Asia-Pacific Regional Meeting for National Ethics/Bioethics Committees, AP-NEC)를 개최한다.

○ 이번 회의는 제10차(’14.6월, 멕시코) 및 제11차(’16.3월, 독일)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국제정상회의*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 간 논의 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 받은 것을 계기로 WPRO와 SEARO**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

* GS-NEC(Global Summit of National Ethics/Bioethics Committees) : 1996년부터 WHO 주관으로 전 세계 국가윤리/생명윤리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활동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회의(격년 개최)

** WPRO(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) : 서태평양지역사무소
SEARO(WHO Regional Office for South-East Asia) :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

○ 23일 저녁, 한국인의 집에서 환영 리셉션으로 시작되는 이번 회의에는 두 지역에서 20개국, 70여명의 위원 및 정부대표단이 참석(국가위원회 대표 19명, 정부대표 16명, 전문가 및 국제기구(WHO, UNECSO) 등)할 예정이다.

□ 회의 주제는 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중 생명윤리 증진(Promoting Health Ethic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)”으로 각국의 생명윤리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고, 위원회의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.